

# 민주 광주시당·전남도당 위원장 누가 되나 '관심 집중'

### 광주시당, 민형배·안도걸·양부남 거론... 원외 강위원 도전장 전남도당, 재선 김원이·주철현 의원 중에서 추대 가능성 높아

오는 8월 열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을 새롭게 이끌어 갈 신임 사·도당위원장이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현역 국회의원이 지역위원장들이 합의 추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광주시당 위원장의 경우 원외 인사가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현역 vs 원외 대결로 치러질 공산이 커지고 있다.

9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광주지역 8명 당선자들은 광주시당 위원장을 합의 추대하기로 이야기를 나눴지만, 명확한 인물은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시당위원장 출마의 뜻을 내비친 당선자로는 광주의 유일한 재선 의원인 민형배(광산을)

와 초선인 안도걸(동남을)·양부남(서구를) 등이 거론되고 있다.

관례상 재선인 민 의원이 추대될 가능성이 크지만, 최근 중앙당 중책인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은 데다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도전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초선 의원 중 1명이 맡을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 지역 정치권의 분석이다. 지역 정치권과 일부 당선자들은 광주 유일의 예산·재정 전문가인 안도걸 당선자가 차기 시당위원장을 맡아야 광주시 현안 사업과 관련한 국비 예산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이런 가운데 원외 인사인 강위원(더민주 전국혁신회의)의 공동대표가 일찌감치 광주지역 당선자들에

게 차기 시당위원장 출마 의사를 밝히고 도전에 나서고 있어 시당위원장 경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친명'(친 이재명) 인사로 꼽히는 강 공동대표는 이 대표의 당 외곽 조직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를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강성 당원들에게는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감정이 있지만, 지난 4·10 총선 과정에서 후보자 검증 통과하지 못한 반면, 검증에서 통과한 뒤 경선을 거치고 총선에서 당선된 사람들을 관리하는 시당 위원장이 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남도당 위원장으로는 재선인 김원이(목포), 주철현(여수갑)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중진급 의원 중에서 합의 추대 형식으로 선출된 기존 방식을 감안하면 위원장을 지냈던 이개호(4선), 서삼석(3선) 의원과 초선 의원들인 권향엽·김문수·문금주·조계원 당선자를 빼면 김·주 의원이 자연스럽게 거론되는 형국이다.

신정훈(3선) 현 위원장 임기가 8월까지인 만큼

본격적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지만 김 의원은 "고민하고 있다", 주 의원은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각자 의사를 피력하고 있다. 다만, 이들 모두 아직 시기가 많이 남아 있어 위원장 선거보다 주요 정치 현안을 우선적으로 챙길 때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기존 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 신정훈(나주·화순) 등 공교롭게 동·서부권 지역구 의원들이 돌아가며 위원장을 맡은 점, 지역구 현안 추진 과정에서의 위원장 역할, 향후 정치적 입지 등이 위원장 추대 과정에서 검토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광주시·전남도당 위원장은 7월 초 투표, 인수인계 뒤 8월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추대 형식이 아닌 후보 간 경선을 치르게 되는 경우 전당대회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김지을·김해나 기자 dok2000@kwangju.co.kr



'유권자의 날' 기념 전시 광주시선관위 직원들이 9일 광주시 동구 광주미술관에서 제13회 유권자의 날 기념 기획 전시를 열고 관객들에게 작품을 설명하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 광주 5월 청소년 행사... 체험·놀이·먹거리 '풍성'

### 청소년시설 10곳서 5·18 체험·동아리박람회 등 다양

광주시는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지역 청소년 시설에서 5·18 나눔·연대 정신을 되새기는 행사와 동아리박람회, 적정기술체험, 청소년월드컵 등 다양한 체험 및 기념행사를 연다"고 9일 밝혔다.

일곡청소년문화의집은 11일 '오월 담은 주먹밥' 행사를 열어 주먹밥을 통해 나보다는 옆 사람을 먼저 돕고 행기된 5·18정신을 되새기며, 17일 낮 12시부터 일곡제1근린공원에서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일곡마을 청소년월드컵'을 연다.

북구청소년수련관도 같은 날 오후 수련관 앞

에서 '북구청소년 어울림마당'을 열고 동아리공연, 체험부스, 진로체험, 부대행사 등 청소년들의 끼와 재능을 발산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광산구청소년문화의집 '야호센터'는 11일 오후 1~4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족,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세계요리체험, 페이스페인팅 등 오감 체험을 주제로 하는 다양한 체험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남구청소년수련관은 18일 '청소년들이 이어가는 5·18'을 통해 오월주먹밥, 태극기 매듭팔찌 만

들기 등 80년 5월 당시 나눔과 연대의 과정을 체험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광주시청소년수련원도 같은날 '5·18 사회참여활동'을 통해 민주교육과 사회참여 캠페인을 벌인다.

각화청소년문화의집은 25일 오후 체험부스, 놀이부스, 먹거리부스, 동아리 전시, 버스킹 공연 등으로 구성된 청소년축제를 연다. 서구청소년수련관도 같은날 유스퀘어 광장을 무대로 오후 2~5시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를 진행한다.

광주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마련한 '청소년동아리박람회'는 6월 1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하늘마당 일원에서 열린다. /박진표 기자 lucky@

## '장마 대비' 반지하·공동주택 침수방지시설 지원

### 광주시, 하천인접 지역 20곳 대상 우선 적용

광주시는 "여름철 장마를 대비해 과거 침수피해 이력이 있는 공동주택과 반지하주택 20곳을 대상으로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2월부터 시 건축·주택부와 협의해 설치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우선 순위에 따라 20곳을 선정했다. 지원 대상은 과거 침수 피해 이력이 있거나 하천 인접 지역에 있는 반지하주택과 공동주택이다.

설치비용은 자부담 5%를 제외한 최대 95%까지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침수 위험이

높은 주거 취약 반지하 주택의 경우 100%를 지원한다.

침수방지시설(물막이판)은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시설로 주로 지하주차장 진출입구와 반지하주택 출입구 등에 설치한다.

신민석 광주시 자연재난과장은 "우기 전 침수 위험이 높은 지하공간의 침수예방 시설 설치 사업을 시작으로 여름철 재해 예방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전남도, e-모빌리티 해외 수출 지원 협약

### 중기청·영광군 등 4개기관과 해외 사업화 기술 지원 등

전남도는 9일 영광식산업센터에서 광주·전남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영광군, 한국자동차연구원, (사)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전남 e-모빌리티 해외 수출 지원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해당 기관들은 ▲전남 e-모빌리티 기업의 해외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수출 관련 국제인증 획득 및 규제 해소 지원 ▲해외 사업화에 필요한 홍보 및 수출 지원사업 지원 ▲해외

사업화 기술 및 기반시설 지원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전남도는 협약을 계기로 오는 6월 베트남에서 '전남 모빌리티데이'라는 해외 시장개척 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동남아시아 시장 선점을 위해 ▲e-모빌리티 수출활성화 공동 생산 기반 구축 ▲동남아 수요 맞춤형 우측 핸들(RHD)차량과 다중화물탑재기술 등 초소형 전기차 핵심부품 기술 개발 등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관련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 기업들의 해외 수출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지구를 위한 선택, 청정수소**

**전라남도가 함께합니다!**

**H<sub>2</sub>**

세계를 준비하는 데도 앞! 전남 행복시대